

유시민 '알릴레오' 대박... 이틀 조회수 150만

유튜브 첫 방 구독자 40만명 돌파... 오늘 '고칠레오' 추가 공개 정계복귀설은 일축... 양정철 "유, 세상이 그냥 놔주지 않을 것"

지난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흥행에 성공했다.

6일 오후 현재 유튜브 1회분 조회수는 150만회를 넘어섰고, 구독자수는 40만명을 돌파했다. 또 팟방 인기차트 상위권에 도 단숨에 이름을 올려 인기몰이를 지속할 지 주목된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1회 토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 12시에 업로드되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팟방,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TV, 아이튠즈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 시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만나는 많은 정보는 땅 밑에 있는 걸 잘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정책의 뿌리, 배경, 핵심정보를 잘 찾아가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항간에는 어떤 보수 유튜브 방송과 알릴레오가 경쟁하

는 것처럼 보도하던데, 제가 양자역학을 하는 교수님께 배운 건 '과학자는 물질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모르는 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저희는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겠다"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 '홍카플라TV'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첫 방송에선 유 이사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중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출연해 남북·북미관계 현안 및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유 이사장은 7일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를 추가로 공개한다. '알릴레오'의 후속 시리즈인 셈이다. 이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정계 복귀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팟캐스트 제작에 관여한 한 인



유튜브 '알릴레오' 첫 방송 장면

사는 이날 "20분 분량의 고칠레오를 모레(8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관심이 집중돼 7일 오전으로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시사 프로그램 '철전'에서 차차고 정의당에서도 탈당했던 유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민감한 현안에 관한 발언을 하기로 하면서 그의 정계복귀설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번 방송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 복귀 관측이 가짜뉴스라고 거듭 선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이사장과 교류하는 한 정치권 인사는 "협재로선 정당에 다시 몸담거나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유 이사장이 결국은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인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핵심 역할을 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청와대 수석이나 유시민 이사장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 팔자 어디 뜻대로만 되겠냐"라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은 "정치를 하게 될 거란 얘기가"라는 물음에 "그렇게 되겠지. 물론 안 하려고 버틸 거다. 유시민과 조국, 두 분은 안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는 가식이 없다고 보지만 그런다고 되겠다"라고 불가피하게 정치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정치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버티다 버티다 재간이 없으니 나오셨다"고 예를 들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금주·이용호 민주 복당 '힘로'

평화당 반발에 내부서도 분분...9일 심사위 개최

무수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 및 복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혁연대의 틀을 함께 했던 민주평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이해찬 대표가 최근 두 의원 지역구에 속한 원외지역위원장들과 만남에서 입·복당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입 서비스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의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복당·입당 신청을 거두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무소속 두 의원의 입당 및 복당 신청은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다루어 한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라고 말했다. 여기에 각각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용

호)과 안철수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손금주)으로 활동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던 이력을 놓고 당내 친문 당원들의 반발도 점차 격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입·복당을 강행할 경우, 당내 내용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오는 9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심사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날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 회의는 접에서 위원들간의 의견을 듣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자격심사위 부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당규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절차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할지나 구체적인 원칙, 기준 등은 첫 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계엄군끼리 오인 사격→"시민군에 습격 당했다"

5·18 계엄군 거짓 서류 꾸며 유공자 지칭

민주당 송갑석 의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마치 시민군 습격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조모 대령의 '전상 확인서'에 따르면 조 대령은 80년 5월 24일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다.

조 대령은 이 서류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5월 24일은 조 대령이 소속된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군인들이 서로를 시민군으로 착각해 총격을 주고받아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날이다. 조 대령 역시 1994년 5·18 관련 검찰 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부대 소속 김모 소령 등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위한 입법 추진해야"

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부 지원 체계화·노사민정 재정립"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고 노사민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열기가 뜨겁다. 이용성 광주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6일 전했다.

천 의원은 "광주시 조례로 추진해 왔지만 중앙정부 지원이 나 노사민정 간 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6일 전주시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재보선 선거 앞으로...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2곳... 1~2곳 추가 여부 촉각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선거전에 시동을 걸 테세다. 이번 재보선은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4월3일 치러져 내년 총선에서 표현될 민심 소재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현재 4·3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확정된 곳은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통영·고성' 등 두 곳이다. 창원 성산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통영·고성은 작년 12월 한국당 이근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각각 공석이 됐다.

현재까지 재보선 확정 지역은 비록 2곳

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많게는 1~2곳이 더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2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들 가운데 한국당 이우현·최경환 의원이 각각 이달 중 2심을 앞둔, 대법원 최종 판결 속도에 따라선 이들 지역구도 재보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보선 지역은 선거 한 달 전인 3월 4일 확정된다. 물론 추가 지역이 생겨도 12곳에 달할 작년 6월 재보선과 같은 미니 총선 급은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두 곳 모두 영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선거 결과

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작년 6월 동시에 치른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험지인 영남에서 대약진한 만큼 이번엔 다시 '대세론'을 입증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하지만, 창원 성산은 노회찬 전 의원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곳이고 통영·고성은 대표적 약세 지역이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영남은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본 부시도는 고역의 미만을 돕기 위해 제작하였는데, 실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용산지구 리뉴얼 전문, 모야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전문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	---	---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링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 신속 ·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